발행처 : 복음과기도미디어(www.gnmedia.org) 구독·문의 ☎ 070-7417-0408~10, Fax 041-663-4011

제145호 2016. 10. 2 ~ 2016. 10. 15 (창간일 2010. 10. 3)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위한

복음기도신문

Gospel Prayer Newspaper

한국어판 www.gnpnews.org
영어판 english.gnpnews.org
일어판 www.gnpnews.net

복음기도신문은 복음과 기도의 증인들의 십자가 자랑과 열방의 뉴스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재해석하여 성도를 열방의 중보기도자로 세우기 위해 격주로 발행되는 신문입니다. 복음과기도미디어는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소망하며 미디어로 열방을 섬기는 초교파 선교단체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난민·이주자 사망률 역대 최고조에 달해

심각한 난민 위기… 올해 사망자 이미 4000명 넘어

한여름의 뜨거운 태양이 걷히자 또 다시 지중해를 통해 유럽으로 가려는 난민 행렬이 급증하는 가운데, 지난 21일(현지시간) 이집트 인근 지중해에서 450명 가량이 탑승한 것으로 추정되는 난민선이 침몰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최소 162명이 익사하고 수백 명이 실종된 이번 사고는 최악의 지중해 난민 참사 중 하나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한 목격자에 의하면 사고 당시 이 선박에는 유럽으로 불법 이주를 시도하려는 이집트인과 시리아인, 수단인, 소말리아인, 다른 아프리카 국가 출신자들이 탑승했다.

국제이주기구(IOM) 데이터 분석센터의 줄리아 블랙 연구원은 "세계가 어느 때보다 높은 이주자 사망률에 직면해 있다."면서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5000명 이상이 숨졌다. 올해는 이미 사망자가 4000명이 넘었고 곧 5000명에 이르게 되는데 실제 인원은 이보다 두 배는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나 정치·사회적 위기 등으로 고향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들은 난민 2130만 명을 포함해 6500만 명에 이른다.

난민 위기가 악화되면서 지난 20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난민·이주민 대책에 관한 후속 정상회의에서는 전 세계 50개국이 수용한 난민수를 2배로 증대해, 올해 36만 명 이상의 난민을 수용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끔찍한 난민캠프 생활에 지치고 수용국에 대한 신뢰와 희망을 잃은 일부 난민들은 차라리 떠나왔던 고국으로 되돌아가는 길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GNPNEWS]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시편 23:4)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신명기 32:29)

기도 | 하나님. 전 세계의 수많은 난민들의 고통과 두려움을 돌아보아 주옵소서. 주께서 그들에게 얼마나 선한 목자이신지 알게 하사 마침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영원한 구원을 바라보게 하소서.

복음기도 포토에세이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리로다

제공: WMM

– 러시아 어느 한 공원에서

기타를 맨 소녀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다. 어떤 노래를 하려는 걸까?

작은 손에 꼬옥 맞는 기타, 빨간색 악보, 트렁크처럼 커다란 스피커, 무선 마이크. 이제 막 짙어지기 시작한 싱그러운 푸른 숲은 소녀의 배경이 되어주었다. 아빠처럼 보이는 남자는 다소 긴장한 듯 악보를 넘겨주며 연주에 앞서 마지막 점검을 하지만, 소녀는 곧 부를 노래가 기대되는지 그저 흥분된 표정이다.

마이크가 켜지고, 기타 줄이 경쾌하게 튕겨지면 소녀의 노래는 스피커를 타고 공원 곳곳에 울려 퍼지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보다 더 아름답고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노래가 울려 퍼지고 있다는 사실을 당신은 아는가? 아무도 모르게 창세전부터 완벽하게 준비되어온 이 노래는 마침내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완성되었다. 죄인 된 우리를 의인으로, 종에서 아들로, 창기에서 신부로 회복하신 하늘 아버지의 노래가 열방 곳곳에서 울려 퍼지고 있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속에서도…. 이 노래의 주인공은 바로 나와 당신이다. 우리 이제 가슴 벅차도록, 이 은혜의 영광을 날마다 찬송하자. [GNPNEWS]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에베소서 1:6)

복음기도신문 창간 6주년 기념호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20)

죄가 많아서 교회에 못 오신다구요?

누구나 기쁜 소식 즉, 복음을 듣기 원한다. 이같이 복음을 갈망하는 영혼들을 위해 다양한 믿음의 고백들을 모았다. 겨자씨선교회에서 제작한 전도지에서 발췌, 소개한다. 〈편집자〉

죄가 많아서 교회에 못 오신다구요? 그래서 죄 문제 좀 해결하고 오시겠다구요? 무척 겸손한 표현을 하시지만 오해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죄 없는 의인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죄 있는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몸에 때가 많아서 목욕탕에 못 간다고 하면 웃으시겠지요? 목욕탕 가기 전에 집에서 대충이라도 씻고 가는 분이 있겠습니까? 더러운 사람이 목욕탕에 가야 하듯, 교회도 죄 있는 사람이 가야하는 모임입니다. 스스로 죄가 많다고 하신 당신은 당연히 교회에 오셔야 하는 분입니다.

죄 많은 사람이 가야 하는 또 다른 곳이 있지요? 바로 교도소입니다. 교도소는 죄인이 정해진 형벌의 기간을 채워 죗값을 모두 치러야 풀려나는 곳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죗값을 당신이 치르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미 당신의 죗값을 모두 대신 치르신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의 죗값은 '죽음'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난 태생적 죄인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대신하여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당신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남으로 새 생명의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대신 죗값을 치른 죄인,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인, 죄가 해결된 죄인의 모임입니다. 교도소는 형기를 마치고 풀려나야 자유를 누리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 안으로 들어갈 때 진정 자유를 누립니다.

죄를 끊고 난 뒤 예수를 믿겠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당신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죽음으로 대가를 치러야 할 만큼 끔찍한 당신의 죄를,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갚으셨습니다. 이제 당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드리고 십자가 복음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하시며 다시는 죄의 종노릇하지 않도록 당신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때가 많아서 부끄러워도 목욕탕에 가야 하듯이, 죄 많은 당신은 이제 용서하시는 하나님 품안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GNPNEWS]

INSIDE

02 **뉴스** | 한국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10.31 일일 금식기도성회 열린다

03 **기획** | 종교개혁 500주년 특별기획
루터의 95개 논제와 십자가 신학

04 **선교통신** | 캄보디아
"교회 청년을 북부 지역의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05 **인터뷰** | 이현삼·손미숙 선교사
"모든 열방이 주님 오시는
그 날을 꿈꾸었으면 좋겠어요"

06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 김용의
꿈이 없는 사람은
살아 있으나 죽은 자

한국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10.31 일일 금식기도성회 열린다

유기성.임석순 목사, 김용의 선교사 주 강사 참여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앞두고 종교개혁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는 일일 금식기도성회가 열린다.

복음기도동맹은 종교개혁기념일인 오는 10월 31일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선한목자교회(담임 유기성 목사)에서 12시간 연속 금식기도성회를 진행한다.

이날 성회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주제의 말씀선포와 기도회로 진행된다. 이번 성회에는 유기성 목사(선한목자교회), 임석순 목사(한국중앙교회), 김용의 선교사(순회선교단) 등이 주 강사로 참여한다.

복음기도동맹은 이번 집회를 앞두고 지난 6월부터 금식기도성회를 앞두고 '경건의 열망을 위한 30일 기도정보'를 매월 1권씩 5권을 제작해 무료로 배포해왔다.

일일 금식기도성회는 본집회장 외에도 국내와 해외에 지역별로 교회 및 기독공동체를 지정, 현장 참여가 어려운 이들을 위해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 화상생중계로도 진행된다.

이번 금식기도성회는 마틴 루터가 500년 전 중세교회에 대한 95개조 반박문을 통해 밝힌 것처럼 참된 회개는 교회의 진정한 보물인 거룩한 복음을 높이며 성도들로 하여금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경건한 삶을 살도록 결단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한편 복음기도동맹은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위해 복음과 기도로 연합하기로 한 교회 및 선교단체의 연합체로 다시복음 앞에 집회를 2011년부터 2년마다 주관해 왔다. [GNPNEWS]

오늘의 열방 다이제스트 (9.11 ~ 9.24)

복음기도신문은 긴급한 열방의 상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열방의 교회, 다음세대, 창궐하는 죄, 이주민 문제, 영적 전쟁 등의 관점에서 전 세계 언론과 통신원들을 통해 모아진 열방의 소식을 요약, 정리해서 제공합니다. 〈편집자〉

시리아 내전 6년째…이혼·일부다처제 증가

시리아 내전이 6년째 이어지면서 이혼이 급증하고 남성보다 여성 숫자가 많아지면서 일부다처제를 택한 가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현지시간) AFP통신이 보도했다. 또한 다마스쿠스의 일부다처제 비율은 2010년 5%에서 지난해 30%로 6배 가량 늘었다.

하나님. 오랜 전쟁으로 인해 신음하고 있는 시리아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수많은 상실의 고통을 겪고 있는 이 땅의 여성들에게 주께서 친히 영원한 신랑이 되소서.

세계 난민 어린이·청소년 600만 명 중 62% 학교 못 다녀

세계 곳곳에 있는 난민 어린이·청소년 600만여 명 가운데 절반도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유엔난민기구(UNHCR)가 15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초등교육을 받는 난민 어린이는 전체의 50%로 세계 평균인 90%보다 현저히 낮다.

전쟁과 기아로 조국을 떠난 수많은 다음세대들을 주의 강한 손으로 붙드소서. 피폐해진 그들의 영혼을 위로하시고 바른 교육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으소서.

한국, 살인·강도 줄었지만 성범죄 급증

한국의 범죄 발생 건수는 연간 190만여 건 수준으로 정체기에 있지만 범죄 검거율은 2005년 78.4%에서 2014년 69.5%까지 떨어졌다고 연합뉴스가 18일 보도했다. 살인·강도 등 일부 강력 범죄는 감소했지만 여성 대상 성범죄가 급증했다고 전했다.

주여.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된 존재는 어떠한 노력으로도 개선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압니다. 십자가로 심판하시고, 영원한 구원을 허락해 주소서. 복음을 믿게 하여 주소서. [GNPNEWS]

아시아

인도 기독교인, 기독교 문학책 배포 중 공격받아

인도 마하라쉬트라 나비 뭄바이시(市)에서 최근 3명의 기독교인이 힌두교인을 개종시키려 했다는 이유로 군중의 공격을 받았다고 영국 크리스천투데이가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아동 심리학자인 프라산트 바트나가르 목사(45)와 2명의 교인들은 나비 뭄바이시(市)의 카르가르와 탈로자 지역에서 기독교 문학책을 배포하다가 주위에 있던 군중들로부터 구타를 당했다.

바트나가르 목사는 근처의 교도소로 이송됐으며, 기독교 팜플렛을 계속 나눠줄 경우 화형을 당할 것이라는 협박을 받았다고 현지언론은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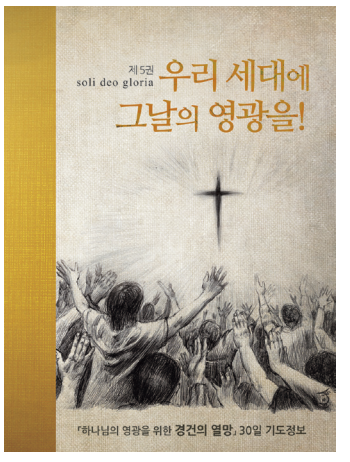
마하라쉬트라 소수자위원회(Maharashtra Minorities Commission) 아브라함 마타이 전 회장은 타임즈 오브 인디아와의 인터뷰에서 "이는 평화로운 단체를 매우 악하게 공격한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지탄했다.

인도에서는 지난 2014년 힌두 국가주의를 표방하는 인도인민당이 정권을 잡은 이후, 기독교인들과 교회에 대한 공격이 급증하고 있다. [GNPNEWS]

한국

'경건의 열망 30일 기도정보' 10월분 배포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앞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경건의 열망'을 위한 기도가 10월까지 진행된다. 새롭게 발간된 10월분 제5권 '우리 세대에 그날의 영광을!' 기도정보집을 가지고 교회나 기도모임, 가정, 개인이 자유롭게 기도에 참여할 수 있다. 기도정보집은 뜻 있는 분들의 헌금으로 제작, 무료 배포된다. 문의 ☎ 010-4910-4641 (복음기도동맹 사무국) [GNPNEWS]



한국

'나의 종, 선지자' 히브리어 선지서 강좌

복음기도신학연구소 내 성경언어훈련학교(이하 BLTS)는 '쎄굴라 히브리어 인텐시브 스쿨(Segula Hebrew Intensive School, 이하 SHIS)을 개설, 매월 새로운 강좌로 원어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훈련을 실시한다.

오는 10월에는 "나의 종, 선지자(My Servants, The Prophets)"라는 선지서 강의를 선보인다. 교육 기간은 10월 11일~13일이며 접수는 9월 23일~10월 7일, 참가비는 비숙박 7만원, 숙박은 9만원(교재비 별도)이다. 문의 및 접수 ☎ 070-4803-9078, 010-6613-7647 [GNPNEWS]

느헤미야52기도 참여교회 및 단체

2016년 10월 1주 ~ 10월 2주

10월 1주(10.3~10.8)

▶광주 북구 / 십자가사랑교회
(김**) 010-6280-4419

▶경기 안산 / 안산은총교회
(전**) 010-5337-2771

10.3~8(14시~19시)

▶경기 시흥 / 은혜교회
(위**) 010-4510-1070

10.7(08시~20시)

▶경기 김포 / 김포전원교회
(정**) 010-7163-3949

10.8(06시~18시)

▶서울 관악 / 신림감리교회
(강을수) 02-853-9191

10월 2주(10.10~10.15)

▶서울 강서 / 강서침례교회
(박**) 010-9306-7471

10.13~14(07~19시)

▶전주 완산 / 전주은혜샘교회
(정**) 010-4272-9905

10.14(08~20시)

▶경기 김포 / 김포전원교회
(정**) 010-7163-3949

기도참여 문의

기도24·365본부 느헤미야52팀 (☎ 070-4803-9026~7, 010-4192-4365) www.prayer24365.org

기획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특별기획(2)

루터의 95개 논제와 십자가 신학

2017년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는 해다. 전 세계에서 종교개혁의 의미를 기리며 교회의 개혁을 외치며 부르짖고 있다. 이에 종교개혁 당시의 시대상황과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종교개혁의 의미와 교회사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교회개혁의 시대적 사명을 살펴본다.〈편집자〉

신속히 퍼져 나간 95개 논제

가톨릭 교회의 타락과 면죄부 문제에 대해 오랫동안 고민하던 루터는 사람들이 몰리는 만성절(萬聖節, All Saints' Day) 하루 전날인 1517년 10월 31일, 면죄부를 비판하는 95개 논제를 비텐베르크 성 교회문에 못 박았다. 그는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된 이 95개 논제를 비텐베르크 소속 주교와 독일의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마인츠의 대주교 알브레히트에게 최대한 예의를 갖춰 편지와 함께 보냈다.

반박문이라 불린 루터의 95개 논제는 그날 이후, 급속도로 독일 전역으로 퍼져 나갔다. 이 논제는 1517년 말 라이프치히, 뉘른베르크 그리고 바젤에서 출판이 될 만큼 많은 반향을 일으켰다. 루터가 몸담고 있는 수도원은 95개 논제를 신중하게 수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수도원장인 울리히 아담은 루터에게 수도원을 논란거리로 만들지 말 것을 당부했다. 논제의 내용들이 당시로서는 너무 파격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면죄부를 설교하며 판매했던 수도사 테첼은 논제를 발표한 루터에 대해 "이 이단자를 내가 3주 안에 불 속에 집어던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가톨릭 교회와 신학논쟁

얼마 후 마인츠의 대주교 알브레히트는 로마 교황청에 루터를 공식적으로 제소했다. 그러나 로마에 있는 아우구스티누스 수도회 총책임자는 이 사안에 대한 소송보다 루터가 본래 의도한 바대로 면죄부 논쟁을 신학적인 토론으로 이끌어 갔다.

95개 논제가 발표된 지 6개월 뒤인 1518년 4월 26일, 루터는 그의 동료요 영적 아버지로 여겼던 요한네스 폰 슈타우피츠의 요청으로 아우구스티누스 수도회 총회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게 됐다. 이 날 모임은 루터의 신학이 만천하에 퍼지는 계기가 된 '하이델베르크 논쟁'으로 역사에 기록된다.

루터는 이 논쟁에서 스콜라 신학자들의 신학을 '영광의 신학'(theologia gloriae)이라고 밝히고, 자신의 관점을 '십자가의 신학'(theologia crucis)이라고 규정했다. 이 세상의 화려함과 권력을 추구하는 당시 로마 가톨릭의 영광의 신학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또 그 이후 라이프치히 논쟁을 통해 루터는 오직 성경만이 순종해야할 신앙의 도리와 생활 규범이며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교회를 개혁하고, 면죄부와 고해성사는 성경의 교훈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일련의 신학논쟁을 통해 루터의 적대자들은 그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게 됐다. 하지만 루터의 확실한 신학적 입장을 듣게된 브렌츠, 마틴 부처와 같은 독일 젊은 신학자들은 그의 우군으로 남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인간의 죄를 심각하게 다루지 않는 가톨릭 교회의 영광의 신학

루터가 제시한 십자가의 신학과 반대되는 입장은 당시 가톨릭 교회의 교황을 정점으로 한 '영광의 신학'이다. 루터에 의하면 '영광의 신학'은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고 가르쳤다. 이 신학은 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 자체로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며, 피조세계 역시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하나님의 오묘하심과 신비를 온전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보았다. 이는 '영광의 신학'이 인간의 이성적 능력과 도덕성을 존중하고 자연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며, 교회 조직과 제도 속에 하나님이 나타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루터는 이 '영광의 신학'으로 인해 종교적인 죄인들의 탐욕의 결과물인 면죄부 판매가 가능하게 됐다고 여겼다. 교황이 자신의 돈이 아닌 가난한 신자들의 돈으로 성 베드로 성당을 짓는 돈벌이는 영광의 신학이 죄인의 탐욕을 위해 악용된 전형이며, 이는 극히 일부일뿐이라는 것이 그의 견해였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가톨릭교회가 갖고 있는 신학의 배경 때문이기도 하다. 가톨릭 교회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으로 대중적 가톨릭의 도덕주의적 경건과 스콜라주의의 이성주의적 신학, 그리고 신비주의의 자아도취적 종교성을 갖고 있었다. 이같은 신학적 관점으로 인해 영광의 신학은 인간의 죄를 심각하게 다루지 않으며, 인간 행위의 공로와 도덕주의적 경건만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영광의 신학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교리를 추상적인 관념으로 전락시키고 말았다. 그 결과 십자가는 죄인이 회개하지 않아도 하늘로 올라가는 구원과 성공과 축복과 영광의 사닥다리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이다.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루터의 십자가 신학

루터에 의하면, 하나님은 신자의 죄를 다루기 위해 영광이 아닌 십자가를 선택하셨다. 또 하나님께서 불행과 고통, 또는 박해와 같은 십자가를 사람에게 허락하신 것은 그들의 육을 죽이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십자가 신학을 주장한 루터는 '진정한 신학'(vera theologia)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주시함으로써 시작된다고 말했다. 이는 십자가가 우리 속에 있는 헛된 영광의 신학을 제거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부적절하고 잘못된 편견들과 가정들을 완전히 부숴버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십자가는 교회가 가져야 할 신학의 토대요 기준이다. 죄와 의심으로 가득 찬 그늘진 세상에서 믿는 자가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지를 조명하고, 모든 인간의 선입관들과 정면 충돌하도록 하는 것이 십자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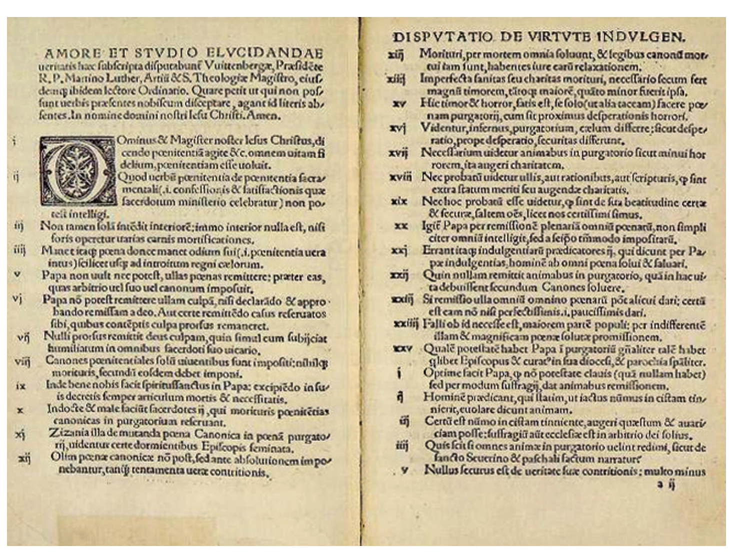
루터에 의하면 '십자가의 신학자'는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임재를 분별하는 자이며, 이로 인해서 "진실로 당신은 숨어 계신 하나님이시니이다!"라는 이사야의 고백이 진리인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자이다.

또한 성도들의 고난도 십자가와 연결될 때 설명할 수 있다. 우리가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우리를 위하여 정확히 같은 고난을 겪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것이다.

결국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었다고 루터는 말한다. 이는 루터의 종교개혁을 가져온 십자가 신학의 비밀을 한 마디로 압축한 설명이다.

이 십자가의 숨겨진 신비를 열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믿음이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만이 암흑과 그늘 속에 가려져 있는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십자가가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안전한 것이다. 누구든지 이것을 이해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GNPNEWS]



AMORE ET STVDIO ELVCIDANDAE ueritatis hæc subscripta disputabunt Vuittenbergæ, Præsidente R. P. Martino Luther, Artiũ & S. Theologiæ Magistro, eiusdemq; ibidem lectore Ordinario. Quare petit ut qui non possunt uerbis præsentes nobiscum disceptare, agant id literis absentes. In nomine domini nostri Iesu Christi. Amen.

i Dominus & Magister noster Iesus Christus, dicendo pœnitentiã agite &c. omnem uitam fidelium, pœnitentiam esse uoluit.
ij Quod uerbũ pœnitentia de pœnitentia sacramentali (.i. confessionis & satisfactionis quæ sacerdotum ministerio celebratur) non potest intelligi.
iij Non tamen solã intẽdit interiorẽ; immo interior nulla est, nisi foris operetur uarias carnis mortificationes.
iiij Manet itaq; pœna donec manet odium sui (.i. pœnitentia uera intus) scilicet usq; ad introitum regni cœlorum.
v Papa non uult nec potest, ullas pœnas remittere: præter eas, quas arbitrio uel suo uel canonum imposuit.
vj Papa nõ potest remittere ullam culpã, nisi declarãdo & approbando remissam a deo. Aut certe remittẽdo casus reseruatos sibi, quibus contẽptis culpa prorsus remaneret.
vij Nulli prorsus remittit deus culpam, quin simul eum subijciat humiliatum in omnibus sacerdoti suo uicario.
viij Canones pœnitentiales solũ uiuentibus sunt impositi: nihilq; morituris, secundũ eosdem debet imponi.
ix Inde bene nobis facit spiritussanctus in Papa: excipiẽdo in suis decretis semper articulum mortis & necessitatis.
x Indocte & male faciũt sacerdotes ij, qui morituris pœnitẽtias canonicas in purgatorium reseruant.
xj Zizania illa de mutanda pœna Canonica in pœnã purgatorij, uidentur certe dormientibus Episcopis seminata.
xij Olim pœnæ canonicæ nõ post, sed ante absolutionem imponebantur, tanq; tentamenta ueræ contritionis.

DISPVTATIO DE VIRTVTE INDVLGEN.

xiij Morituri, per mortem omnia soluunt, & legibus canonũ mortui iam sunt, habentes iure earũ relaxationem.
xiiij Imperfecta sanitas seu charitas morituri, necessario secum fert magnũ timorem, tãtoq; maiorẽ, quãto minor fuerit ipsa.
xv Hic timor & horror, satis est, se solo (ut alia taceam) facere pœnam purgatorij, cum sit proximus desperationis horrori.
xvj Videntur, infernus, purgatorium, cœlum differre: sicut desperatio, prope desperatio, securitas differunt.
xvij Necessarium uidetur animabus in purgatorio sicut minui horrorem, ita augeri charitatem.
xviij Nec probatũ uidetur ullis, aut rationibus, aut scripturis, q; sint extra statum meriti seu augendæ charitatis.
xix Nec hoc probatũ esse uidetur, q; sint de sua beatitudine certæ & securæ, saltem oẽs, licet nos certissimi simus.
xx Igitur Papa per remissionẽ plenariã omniũ pœnarũ, non simpliciter omniũ intelligit, sed a seipso tãmodo impositarũ.
xxj Errant itaq; indulgentiarũ prædicatores ij, qui dicunt per Papæ indulgentias, hominẽ ab omni pœna solui & saluari.
xxij Quin nullam remittit animabus in purgatorio, quã in hac uita debuissent secundum Canones soluere.
xxiij Si remissio ulla omniũ omnino pœnarũ põt alicui dari; certũ est eam nõ nisi perfectissimis .i. paucissimis dari.
xxiiij Falli ob id necesse est, maiorem partẽ populi: per indifferentẽ illam & magnificam pœnæ solutæ promissionem.
xxv Qualẽ potestatẽ habet Papa ĩ purgatoriũ gñaliter talẽ habet qlibet Episcopus & curat' in sua dioecesi, & parochia spãliter.
i Optime facit Papa, q; nõ potestate clauis (quã nullam habet) sed per modum suffragij, dat animabus remissionem.
ij Hominẽ prædicant, qui statim, ut iactus nũmus in cistam tinnierit, euolare dicunt animam.
iij Certũ est nũmo in cistam tinniente, augeri quæstum & auariciam posse: suffragiũ aũt ecclesiæ est in arbitrio dei solius.
iiij Quis scit si omnes animæ in purgatorio uelint redimi, sicut de sancto Seuerino & paschali factum narratur?
v Nullus securus est de ueritate suæ contritionis; multo minus
a ij

▶ 마틴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위)과 로마 가톨릭 교회와 논쟁하는 루터의 모습.

선교 통신

"교회 청년을 북부 지역의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끔헹(17) 자매를 캄보디아 북서쪽 '뽀이 빠엣'이란 지역에 사역자로 파송했습니다. 최근 그 지역에 정착한 한 선교사님 부부가 언어 소통 등의 문제로 사역자 지원을 요청했는데,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자매가 자원하여 가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끔헹 자매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고아같이 버려진 아이였습니다. 세 번째 재혼한 어머니가 어느 날, 오토바이를 한 대 사주면서 '이제 다 컸으니 알아서 살아라.'고 말했습니다. 자매는 더 이상 머물 수 없어 집을 나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프놈펜에 있는 동안 쪽방에 세 들어 살았습니다. 낙심되고 좌절되는 상황에서도 다행히 끔헹 자매는 주님을 붙잡았습니다. 돈이 없어서 먹을 것을 사먹지 못하고 공부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어떻게 먹고 사는지 안쓰러워 한 번 씩 안부를 물을 때면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간증을 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돈이 한 푼도 없는 상태에서 학교로 걸어가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길에 떨어져 있는 돈을 줍게 되어 먹을 것을 사먹고 공부할 수 있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랍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장학금으로 조금씩 도와주고 있지만 주님 은혜로 이 자매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최근 이 나라 북부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한 선교사님이 사역자를 요청하셔서 이 자매에게 물었습니다. 사실 지금 살고 있는 프놈펜은 친척 언니도 있고, 학비만 있으면 공부하기 좋은 환경입니다. 그런데도 자매는 먼 곳으로 선뜻 가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주님께서 어디로 보내시든지 가겠습니다."

끔헹의 고백을 듣고 이 자매가 단순히 선교사님을 돕고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선교사로서 간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7일 주일예배 이후 선교사 파송식을 가졌습니다.

뽀이 빠엣은 카지노와 유흥업소가 많고 경제적으로 부유하긴 하지만, 범죄율이 높기로 유명하고 살인사건이 빈번하며 가난한 사람은 살기 어려운 곳입니다. 이런 곳에 간다고 하니 교회 어른들이 걱정하며 자매의 손에 쌈짓돈을 쥐어주시며 격려하면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자매가 떠나고 난 뒤, 얼마 전 그곳 선교사님이 연락해왔습니다. 자매가 열심히 전도하며 아이들을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9월에는 교회 청년들과 함께 이곳으로 국내 선교를 다녀올 계획입니다. 이번 사역을 통해 뽀이 빠엣 지역에 복음의 불씨가 타오르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GNPNEWS]

캄보디아=김현호 선교사

남북 분단 이후 수단의 이슬람화, 기독교인 박해 심각

목회자들 마구잡이 구속… 입국한 남수단 목회자 간첩혐의 기소

수단 정부가 일시 입국한 남수단 목회자의 설교내용을 문제 삼아 간첩행위 등의 혐의로 구속, 지난 8월말 재판을 열었다고 월드워치 모니터(WWM)가 최근 밝혔다.

WWM은 수단 트리뷴을 인용, 남수단의 누바 고지에서 사역하고 있는 하싼과 쿠와 목사가 동영상을 조작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수단 정부의 명예를 실추시켜 수단 검찰에 기소됐다고 전했다.

수단 검찰은 이들 두 목사가 정보를 조작하고 불온물을 유포하여 남수단의 남부 코르도판(Kordofan) 지역에서 반군에게 자료를 제공했 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트북에 들어 있었던 동영상을 유포해 수단에 국제적인 압력을 불러일으키려 했을 뿐만 아니라, 수단정부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허위 사실유포를 비롯 간첩행위, 불법과 범죄로 인한 정부반대, 계층간 반목 조장 등 최소 7개 이상의 죄목을 씌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죄목들이다.

수단은 이밖에도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을 기소 구속하는 등 조직적으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있다. 이미 많은 목회자들이 체포와 석방을 반복하고 있다.

수단 정부의 이같은 기독교인에 대한 핍박은 2011년 남수단과 분리 독립한 이후 한층 강화되고 있다. 이는 오마라 알 바시르 수단 대통령이 엄격한 이슬람 법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국가 개조와 헌법 개정을 선언한데 따른 것.

한편, 현재 수단 내 많은 기독교인이 거주하고 있는 누바 고지는 오래전부터 음식과 의료혜택과 주거지 등 기본 수요의 공급을 차단하는 등 이슬람 정책을 표방한 정부의 지속적인 박해가 있어 왔다. 정부는 이런 정책으로 촌락과 농장들을 파괴하여 인위적인 기근과 기아를 만들어 냈고, 엄청난 인구를 대량학살했다.

뿐만 아니라 수단내 기독교인들은 '열등시민'으로 분류되며, 모든 법률은 시민들의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독교인들에 대한 살인, 방화가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교회 건물들은 대부분 파괴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 [GNPNEWS]

창간 6주년 기념사

물 떠온 하인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많은 하객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혼인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똑 떨어져 버렸습니다. 잔치에 초대받은 예수의 어머니가 그 사실을 알고 하인에게 이릅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이 시키는대로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하인들에게 이르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인들은 두 말 없이 거기에 있던 여섯 개의 돌항아리에 아귀까지 꽉꽉 담아 물을 채웁니다. 다시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인들은 시키는대로 했습니다.

연회장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지금까지 남아 있다니" 하인들이 물을 붓는 순간 물은 포도주로 변해 있었습니다. 연회장도, 어느 하객도 몰랐지만 오직 물 떠온 하인, 그들은 그 비밀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한 평생 삶을 살면서 기적과 같은 일을 경험합니다.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일이 어느 날 이뤄지기도 합니다. 한 번도 그런 일을 본 적이 없으십니까?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복음기도신문이 바로 그런 기적의 증거입니다.

올해 10월 3일은 복음기도신문 창간 6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지난 6년을 돌아보며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이 생각났습니다. 복음기도신문 한 호 한 호가 그렇게 변화된 포도주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2010년 초 주님은 저희에게 '물 근원으로 나아가라'(왕하 2:21), 그를 높이라(잠 4:8)는 말씀으로 미디어 사역을 섬기도록 이끄셨습니다. 아무런 기반도 없이, 경험도 없는 하인들이 모여 격주간 신문을 발간하기로 했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항아리에 물을 붓듯이 기도하며 순종했습니다. 기획부터, 기사집필, 편집과정, 발송과정 모두 주님 은혜로 이뤄져 왔습니다. 엘리야에게 은혜의 통로가 오직 까마귀였듯, 모든 제작 과정이 그런 까마귀 같이 이름도 빛도 없이 섬겨주신 동역자들의 섬김으로 이뤄졌습니다.

그동안 외형상의 변화도 있습니다. 수백 명의 구독자가 수천 명으로 늘어나고 발간된 신문의 부수도 3만부에 이릅니다. 모두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보발군으로 최소한 두 부의 신문을 받아보며 나머지 한 부 이상의 신문을 가족과 지인에게 나누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는 한 목사님이 과월호 신문 수천 부를 가져갔습니다. 불신자나 성도 누구든 모두가 이 신문을 통해 많은 은혜와 감동을 누리고 있다며 지난 신문으로 전도를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신문은 시간이 지나면 쓰레기 취급을 받거나 파지로 그저 헐값에 팔려갑니다. 그러나 복음기도신문은 몇 년 전 신문도 여전히 새 신문처럼 새 소식, 새 노래를 담은 것 마냥 여겨집니다. 믿음의 증인들의 생명의 소식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동안 이 일을 섬길 미디어 선교사도 새롭게 허락하셨습니다. 이생의 자랑, 육신과 안목의 정욕을 추구하는 미디어가 난무하는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는 관점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미디어로 회복시키고 있는 증인들을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물 떠온 하인의 기쁨을 함께 맛보고 싶은 분 계신가요? [GNPNEWS]

발행인 겸 편집인 김강호 선교사

구독신청 안내

아래의 전화나 이메일로 신청해 주세요. 구독부수는 최소 1명 이상에게 복음을 나누며 전하도록 2부, 20부, 100부 이상 신청받고 있습니다. 구독료는 받지 않습니다.

후원 안내

복음기도신문은 동역자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제작·배포되고 있습니다. 동역하실 분들은 아래 후원계좌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국민은행 : 651001-01-343666
예금주 : 복음과기도미디어

후원자 명단

2016. 9. 9 ~ 9. 23 (가나다 순)

개인

강종채 권혜령 김수미 김승수 김영세 김영임 김인화 안병윤 양혜원 우 석 윤경석 이경희 이미정 임종태 장근혜 장영선 정영숙 조상국 조성실 차인순 허금희 무명

교회 및 단체

동명교회 순회선교단
순회선교단다음세대팀 전능자의 그늘(쉘, ShAM) 영광교회
인천주님의교회 전주온누리교회
주만교회 팔복감리교회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사 제보.구독.헌금.동역 문의는 아래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070-7417-0408~10
E-mail:gnpnews@gnmedia.org
충남 서산시 운산면 원평 3길 8 (31952)
페이스북 www.facebook.com/gospelprayernews

발행인 겸 편집인:김강호, 인쇄인:이병동[(주)아이피디]. 2010년 12월 1일 등록번호 충남, 다01355.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나눔&나눔 삶의 나눔으로 되새겨 보는 하나님의 은혜

"모든 열방이 주님 오시는 그 날을 꿈꾸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화를 꿈꾸는 이현삼·손미숙 선교사

▶ 출국 전 가족이 기념사진을 찍었다. 가운데 왼쪽부터 첫째 의연, 둘째 규연

예수님 당시 유대의 결혼식은 저녁 무렵에 열렸다. 주님은 이런 결혼식을 비유로 누가복음에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눅12:36)고 말씀하셨다. 주인이 한밤중에 와도 한결같이 깨어 맞이하는 종처럼 열방 어디에서든 주님을 기다리며 오늘 하루를 살기로 한 이현삼, 손미숙 선교사 부부. 태국으로 떠나기 전 선교사로 헌신하기까지의 삶의 여정을 청취했다.

- 어떻게 주님을 만나셨나요?

이현삼(이하 이): "중2 때 친구를 따라 처음 교회에 갔지만, 정말 하나님을 경험한 것은 대학3학년 때였어요. 저는 대학시절까지 교회 안에서 모범생이었어요. 성가대, 교사, 임원 등 청년부 일을 많이 맡았죠. 하지만 조건과 상황이 허락되자 음란함에 빠지는 존재적으로 죄인인 저의 모습을 보게됐어요. 너무 괴로워 도망치듯 한 선교단체의 훈련에 들어갔어요. 접도라는 섬으로 아웃리치를 갔는데 사고가 나서 차가 몇 바퀴를 굴렀어요. 순간 본능적으로 주님을 부르고 정신을 잃었어요. 커브 길만 돌면 바로 저수지였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그때 선교헌신을 결단했어요. 그러나 훈련과정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이후 다시 일상에 복귀했어요. 대학은 졸업해야 한다는 부모님의 말씀을 핑계로 다시 학교를 다니고, 졸업을 하니 군대와 결혼, 생활인이 되어간 거죠."

손미숙(이하 손): "저는 대청도라는 섬에서 태어나 자랐는데, 아빠가 술을 많이 드셨어요. 부부싸움을 하실 때마다 교회에 숨으면서 '나는 누구지? 뭘 하며 살아야 하지?' 해결할 수 없는 고민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고등학교 졸업 후 인천으로 나와 직장에 다니면서 언니들과 함께 다니게 된 교회에서 남편을 만났어요. 처음으로 수련회에 가고, 청년부 전도도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해 많이 들었어요. '저 형제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지?' 궁금했어요. '선교'라는 것도 이 사람한테 처음 들었어요. 그냥 내가 옆에서 기도해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나중에 선교사로 헌신을 할 때도 주님께서 그 약속을 기억나게 해주셨어요. 그렇게 군대 가기 4개월 전 교회에서 만나 군복무 중 결혼했어요."

- 수십 년의 삶을 아주 짧게 정리해주셨네요. 그런데 이제 선교지로 떠나는 것을 보면, 그때 선교사로 헌신을 바로 하지 않으셨나봐요.

이: "저는 그때 경건의 삶을 살아내려고 나름대로 치열했어요.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 내가 거룩을 이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군대에서 술을 마시게 됐어요. 군대 전역 후 회사에 입사하면서 자연스레 술은 생활의 일부가 됐어요. 아내에게는 들킬까봐 피하고 거짓말하고, 회사에서는 세상을 따라가고, 교회에선 거룩한 이중생활을 했어요. 그런 결혼생활이 계속 이어지면서 이혼까지 생각했죠."

경건을 꿈꿨지만 현실 앞에서 무너지고

- 많이 힘드셨겠네요. 위기를 어떻게 넘기셨나요?

손: "가정적이고 화를 잘 안내던 남편이 점점 변해갔어요. 부부싸움이 잦아졌고, 남편은 사회생활을 하려면 어쩔 수 없다고 했죠. 혼자 육아를 감당하면서 늘 남편과 아이들에게 짜증을 냈어요.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 성가대까지 했지만 목마름이 깊어졌어요. 나는 왜 살지? 어떻게 살아야하지? 또다시 옛날의 그 질문으로 돌아갔어요. 그때 남동생이 한 신앙 훈련과정을 소개했어요. 저는 이미 알고 있는 복음을 배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누나, 그렇게 갈급하다면서 일생 중 일주일을 주님께 못 드려?' 제 마음의 갈급함을 깨닫게 해줬어요. 그래서 두말없이 가게 됐어요. 주님이 저를 초대해 주신 거죠."

- 어떤 은혜가 있으셨나요?

손: "저는 애쓰고 힘써야만 인정받고 칭찬을 듣는 줄 알았어요. 구원도 내가 힘써야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집에 와서 아이에게 무릎 꿇고 사과했어요. 아이를 감정대로 대하고 내 기준으로 살인한 자였으니까요. 남편의 부재 때문이긴 했지만 외롭고 고독해서 남편 대신 TV를 통해 만족하는 간음한 여자였어요. 그 후 로마서, 에베소서를 50번씩 읽으면서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복음을 살게 하시는 새로운 세계가 열렸어요. 그런데 삶은 여전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복음이 실제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많이 했어요."

- 그런 아내를 보는 마음이 어떠셨나요?

이: "정말로 아내가 달라졌어요. 그런 변화가 일주일이겠지 했는데 오래갔어요. 목사인 처남이 어느 날 제게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다고 했어요. 놀랐죠. 전 안됐거든요. 2012년 초에 저도 그 훈련학교에 가게 됐어요.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에게서 도망쳐 20여 년간 세상에서 잠수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아내에게도 그동안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어요."

아내의 변화를 보고 복음 앞에 서다

- 남편의 변화를 보는 마음은 어떠셨나요?

손: "남편을 믿었고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처음에는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 저의 마음을 복음의 진리 앞에 비추어보게 됐어요. 이런 상황을 겪고 보니 저 역시 변하지 않았다는 것과 존재 안에 뿌리박혀 있는 죄 된 실체를 보게됐어요. 나는 정말 소망이 없구나 하는 제 마음의 사형선고를 받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한 번 더 큰 사건이 있었어요."

- 어떤 사건이었나요?

이: "십자가 복음의 감격과 함께 선교훈련을 받고 있을 때였어요. 아이와 함께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아내가 TV를 보지 못하게 아이를 끌고 가더라구요. 그만하라는 내 말에도 순종하지 않는 아내에게 화가 치밀었어요. 결국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식탁 위에 있던 칼을 집어드는 저를 보게 된 것이죠."

- 정말 놀랐겠군요.

이: "내가 정말 사탄의 앞잡이구나, 죄인이구나…. 저에게도 충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 부딪히는 사건이 또 있었어요. 2014년 겨울에 다음세대 아이들을 인솔해서 러시아로 아웃리치를 갔어요. 하루는 숙소 문이 잠겨 들어가지 못한 날이 있었어요. 영하 40도까지 떨어진 날씨였어요. 그 상태에서 밖에서 10분 이상 있으면 호흡은 물론 뇌가 얼어버린다고 들었어요. 전화도 안 되고,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밖에요. 아이들과 기도를 시작한지 2, 3분도 안돼서 한 여자 분이 문을 열어줬어요. 저는 그때까지 대기업에서 전략, 인사기획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가 여전히 저의 삶에 실제였어요. 믿음의 삶과 저의 일상의 삶이 충돌 되면서 현실에서 하나님만을 믿으며 산다는 것이 두려웠어요."

- 어떤 두려움이었나요?

이: "재정문제가 가장 컸어요. 내 시간과 모든 것을 드려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 것도 사실인데, 현실을 생각하면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기도로만 재정을 구해 살아야 하는 선교사는 못하겠고, 목회를 하면 낫지 않을까 고민했죠. 그렇게 2015년 3월에 사직서를 쓰고, 6개월간 강원도 안흥에 있는 한 선교단체의 합숙훈련소로 들어갔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주님의 뜻을 듣고 싶었어요. 미심쩍은 영역을 둔 상태로 갈 순 없으니까요."

회사를 사직하고 선교훈련 받다

- 어떤 응답을 들으셨나요?

이: "먼저는 훈련기간 중 철저하게 저의 존재에 대해 절망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 끝에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하신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였어요. 나는 직업을 구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큰지 보여주시고, 하나님 마음과 꿈을 보여주셨어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에서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네 번이나 말씀하시며, 한 영혼을 구하는 기도와 울부짖음이 없는 것에 대해 애통해 하시고, '나 정말 오고 싶다' 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알아졌어요. 내 존재의 절망은 똑같지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분명해졌어요. 그 하나님의 꿈, 그 영광을 보았어요."

- 남편의 변화를 아내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셨나요?

손: "남편이 훈련을 마치고 돌아온 지 한 달 후 저도 동일한 6개월 훈련과정에 참여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남편이 집을 처분하고 다른 가정과 함께 빈집에 들어가 공동체 생활을 시작했다는 것을 들었어요. 전세보증금은 어딘가에 흘려보내고요. 그 소식을 듣고 내 마음과 결단이 주체할 수 없이 흔들렸어요. 계속 기도실에서 '주님 저 좀 만나주세요, 저 좀 살려 주세요.' 기도했어요. 빌립보서 말씀기도를 하는데 은혜는 받고 싶지만 고난은 받고 싶지 않은 저를 보게 해주셨어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드리는 이것이 진짜 자기부인이고 십자가의 죽음인 것을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남편과 동일하게 우리세대에 그날의 영광을 볼 꿈과 약속을 주셨어요."

이: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 저도 어려웠지만, 어려움을 넘어서는 기쁨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실제이고. 이 꿈도 실제였으니까요. 그 순종의 기쁨은 맛 본 사람만 알게 돼요."

- 선교완성의 그 날을 기다리는 믿음이 더욱 실제되는 계기가 있으셨나요?

이: "사실 '그 날의 영광과 세계복음화'가 계속 기도로 외쳐지지는 않았어요. 눈에 보이는 삶을 사니까요. 그런데 공동체 안에 사건이 있었어요. 공동체로 함께 사는 가정의 자녀가 아웃리치에서 몇몇 아이들을 가르친다며 때린 일이 있었어요. 우리 둘째도 거기 있었구요. 아이가 아웃리치를 마치고 집에 왔는데 그 형을 보면 두려워하고 도망갔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화가 치밀어 오르고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울부짖었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6면에 계속〉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 소망의 복음(1)

꿈이 없는 사람은 살아 있으나 죽은 자

가슴에 손을 얹고 자신에게 물어보라. "내 소원이 뭐지? 난 정말 뭘 원하지?"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른 채 정신없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피곤하고 지친 삶을 사는가? 혹 소원이 있다면 얼마나 간절한가? 그러나 원하는 것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존재'가 되지 않으면 그냥 사라지기도 한다. 그러므로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을 소원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슨 짓을 다해도 인간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

소원이 정말 간절하면 상황은 문제가 안 된다. 그 꿈과 소원이 깊어지면 한(恨)이 된다. 그리고 맺힌 한은 곧 내가 되고, 나의 운명이 된다. 그래서 꿈과 소원이 운명이 되어 버린 사람은 다른 것을 선택할 수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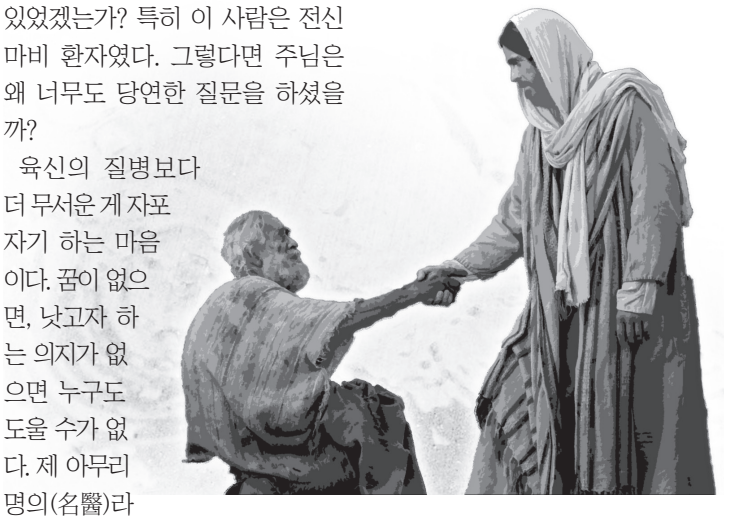
소원이 운명이 된 사람에게 절망이라는 말은 사치에 불과하다. 절망하는 사람에겐 소원이 운명이 된 적이 없다. 그는 한 번도 그런 소원과 맞닥뜨린 적이 없다. 정말 소원이 존재 자체가 되어버린 사람은 죽음도 못 꺾는다.

교회 안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꿈이 없다고 아우성이다. 간절히 바라는 소원이 없으면 무기력에 빠지게 된다. 사람은 창조될 때부터 내면적인 존재였다. 그래서 사람은 존재적으로 마음에 소원하는 바가 없으면 에너지를 쓰지 않게 되어 있다. 원하지 않는 일에는 절대 자기 자신을 바치지 않는다. 기쁨도, 만족도 없다. '꿈이 없는' 사람은 '살아 있으나 죽은 자'와 같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를 찾아가셨다. '자비의 집'이라는 의미의 베데스다, 그곳은 치명적인 질병을 가진 채 사람의 힘이나 당시의 의학 수준으로는 도저히 가망 없는 자들이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곳이었다. 간헐천이어서 평상시에는 물이 없다가 일 년에 한두 번 물이 솟구쳐 오르는데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는 무슨 병을 가졌더라도 다 낫는다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는 곳, 주님이 그 곳을 방문하셨다.

꿈과 소원이 한(恨)이 되고 운명이 된 사람

거기, 38년 된 병자가 누워있었다. 주님은 그의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셨다. 금방 고쳐 주시든지, 그냥 지나치시든지 하셔야 하는데, 주님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셨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이 물으셨다. 거기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서 물이 동(動)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수많은 병자들 중에서 낫기를 원하지 않았던 사람이 있었겠는가? 특히 이 사람은 전신마비 환자였다. 그렇다면 주님은 왜 너무도 당연한 질문을 하셨을까?



육신의 질병보다 더 무서운 게 자포자기 하는 마음이다. 꿈이 없으면, 낫고자 하는 의지가 없으면 누구도 도울 수가 없다. 제 아무리 명의(名醫)라 할지라도 살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환자는 어쩔 수가 없는 법이다. 병중에 제일 무서운 병은 마음의 병이다. 설사 아주 가끔 물이 동한다 해도 38년 된 병자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었다. 언젠가부터 낫고자 했던 그의 꿈과 의욕은 사라져갔다. 찾아오신 주님이 건드리신 것은 그의 꿈이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가 생전 처음으로 들었던 말이다. 그러자 그의 내면 구석에 힘없이 누워있던 그의 꿈이 다시 되살아났다. (2016.2 메시지 정리)〈계속〉 [GNPNEWS]

김용의 선교사(순회선교단)

복음을 선포하다

"마침내 돌 위에 올라가 복음을 선포했다"

내 생애 처음으로 복음을 선포했다.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내 또래의 학생들도 많았던 버스 터미널에서.

처음에는 몇몇이 짝을 지어 터미널과 그 주변을 다니면서 복음이 담긴 신문을 전했다. 한참을 가다 보니 큰 시장이 보였다. 야외가 아닌 지붕이 있는 실내시장에서 주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물고기와 여러 가지 해물을 팔고 계셨다. 우리 중에 한 오빠가 이곳에서 복음을 선포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시장의 지붕을 타고 말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릴 것이라며 앞으로 나섰다. 나는 옆에서 중보기도를 했다. 그 오빠가 시장입구에서 큰 소리로 복음을 선포했지만, 안쪽까지 잘 들리지 않았다. 한 언니가 입구에서 더 들어가 선포했다. 정말 엄청 멀리 울려 퍼졌다. 주님의 말씀이 서산 시내에 울려 퍼지길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다.

모두 복음을 선포하고 마지막으로 나만 남게 되었다.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래서 곧바로 핑계를 댔다. "저는 목소리가 원래 작아요. 아무리 크게 말을 해도 진짜 들리지가 않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랬고 지금도 아직 그래요." 사실이었다. 나는 목에 문제가 있는지 무언가 막혀 있는 것 같아서 정말 괴로울 때가 많았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큰 소리로 선포하는 것을 피하고 그대로 시장을 나왔다. 시간이 다 되어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던 친구들이 다시 터미널로 모이기 시작했다.

순종하니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

터미널 앞에는 큰 돌이 하나 있었는데 정말 복음을 선포하기 좋은 자리 같았다. "나도 저기서 하고 싶다…' 혼잣말을 했다. 옆에 있던 언니가 그 말을 들었는지 "그럼 해요!"라고 권했다. 하지만 용기가 없었고 두려웠다. 그때 마침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형제들 말고 자매들이 선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자 그 언니가 "하은 자매가 하고 싶대요!" 라고 말했다. 나는 진짜 당황했다. 사실 자매들이 선포한 것을 거의 보지 못했고, 오빠들만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나는 선생님께 목소리가 작다고 말하며 피하려 했다. 그러나 선생님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격려해주셨다. 순간 그 말을 믿게 되었고 그 높은 돌이 있는 곳까지 가게 되었다. 돌 위에 올라서기까지 정말 쉽지 않았다. 그러나 주님이 하실 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올라갔다. 이제는 정말 복음을 전해야 했다. 생각나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16절 밖에 없었다. 나는 잘 몰라도 힘껏 소리를 높여 말씀을 선포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후에 무슨 말을 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 분명한 것은 주님이 하셨다는 것이다. 끝나고 내려왔을 때 순종의 기쁨이 있었다. 순종하면 그렇게 기쁠 수 있는 것인가? 정말 그렇다! 순종하기까지 두렵고 떨렸지만 정말 주님이 하시는 영광을 볼 수 있어 행복했다. 내 뒤를 이어 다른 자매들도 차례로 복음을 선포했다. 한 사람이 순종하면 모든 사람이 순종하게 된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다. 사실 시작하신 분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시다.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롬 5:19b) 나의 순종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실 그분을 오늘도 찬양한다. [GNPNEWS]

전하은(18)

〈5면에 이어〉

Interview

"생명이 변화된 자는 주님을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지체의 아이를 위해 기도하고는 있었지만 행동이 바뀌기만을 구했지 정말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까지 구하지 않았다는 것을요. 그것을 구하지 않았을 때 내 아이가 죽는 걸 본 거예요. 결국 마지막 한 영혼에게까지, 내 옆의 지체에게까지 이 싸움이 끝나지 않으면 내 자녀가, 우리 모두가 죽는다는 것을 알게 됐죠."

손: "'선교완성이 정말 가능할까? 마지막 때가 온다는 말은 들었는데 다들 못 보고 죽었잖아? 언젠가는 그렇게 되겠지…'라고 생각해 왔어요. '그렇다면 나는 아직 죄 짓고 싶어, 이곳이 더 좋아, 예수님은 아직 오시면 안 된다.'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결국 주님으로 충분하다는 나의 고백은 거짓이라고 결론이 났어요. 하지만 생명이 변화된 자는 주님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믿음으로 취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어요. 주님 다시 오시는 이 꿈을 꾸어야 하는 교회를 향해 내가 했던 기도들이 다시 되돌아와 제 귀에 들렸어요. 그때 알게됐어요. 내 굳은 마음도 이렇게 변화시키셨다면 열방에도 이 일을 하시고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겠다는 비전이 믿어졌어요."

- 곧 태국으로 나가시는데, 기도제목을 나눠주세요.

이: "그곳에서도 우리 가정에 은혜로 이루신 것처럼 우리 세대에 다시 오실 주님을 본다는 이 꿈을 함께 꾸게 하시길 원해요. 기름을 준비 못한 다섯 처녀처럼 주님이 더디 오신다 생각하지 않고 매일이 그날인 것처럼 살길 바라고요. 우리에게 소망은 그것밖에 없어요. 상대방이 누구든, 초신자든, 불신자든, 사역자든, 모두에게 이제 정말 다른 것을 얘기할 수 없어요. 매일매일 이 꿈이 선명해지길 기도해주세요."

손: "오늘을 허락해 주신 이 한 날을 사는 삶이 저에겐 전부에요. 그날의 영광이 나의 생명이 되어 날이 가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께 미쳐가고 싶어요. 그것이면 충분해요." [GNPNEWS]

E.J.

믿음의 삶

"황폐한 광야를 보며 내가 광야 같은 존재임을 깨달았다"

선교훈련을 받으며 마지막 과정으로 2주 동안 아웃리치를 가게 되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신 땅은 바로 이스라엘이었다. 하지만 내가 소망하는 나라는 다른 곳이었기에 왜 이스라엘에 가야 하는지 궁금했다. 이런 상황에서 나의 뜻, 나의 생각을 버리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시작이었다. '네 발에 신을 벗으라.'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이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마음에 새겨졌다.

준비하는 시간들이 길게 느껴졌는데, 어느새 출정하는 날이 되었다. 모스크바를 경유해 이스라엘 도착까지 약 14시간. 우리 팀원들 각자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기대하며 아웃리치가 시작됐다.

훈련을 시작하면서부터 아웃리치는 성지순례가 아니라는 소리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다. 그래서 하루 동안 한 곳만 보아도 그저 감사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신실하신 하나님은 정말 많은 곳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육체의 한계에 다다르면서 상황과 조건만 허락되면 끊임없이 솟구쳐 나오는 나의 옛 자아의 모습들로 주님뿐 아니라 팀원들과 연합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찾아왔다. 그럴수록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는 더욱 말씀과 기도를 붙들게 되었다. 다시 한 번 아웃리치가 영적전쟁터임을 실감하는 시간이었다.

육체의 한계 앞에서 기도로 나아가다

며칠 후 이스라엘의 광야를 밟게 되었다. 결코 인간 홀로 살 수 없는 광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부르짖어야만 나아갈 수 있는 광야. 그 광야에서 나를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했다. 그때 깨닫게 되었다. 황폐한 광야가 결국 나인 것을 말이다. 광야 끝에서 아웃리치 나라가 발표될 때 주님이 주셨던 말씀이 떠올랐다. '이 땅의 회복을 보리라.' 내가 회복되어 이 땅의 회복을 보게 될 것이라는 은혜의 약속이었다.

유대인들은 자신 스스로를 선인

장으로 표현한다고 한다. 광야의 어떤 악조건에서도 살아남아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강인함과 억척스러움 때문이다. 그러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온 몸에 가시를 세워 방어함은 결국 서로를 찌르게 된다. 선인장을 통해 우리의 가시, 상처, 아픔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찌를 뿐 아니라 나 자신도 찌르고 있지는 않은지 묵상하게 되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가시 같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변함없이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셨다. 주님 사랑이면 충분하다. 내 가시에 집중하다 보면 주님의 사랑을 놓치기 쉽다. 그래서 더욱 주님만 바라보며 주의 사랑이 이스라엘 땅에 넘쳐 흐르기를, 온 열방에 넘쳐 흐르기를 기도했다.

각자의 연약함과 못난 모습이 드러날수록 십자가에서 이미 연합된 생명인 것을 누리도록 주님이 이끌어주셨다. 각자의 직임을 감당하고 자신이 죽은 그 자리에서 순종하는 팀원들을 통해 연합이 무엇인지 보고 깨닫는 시간이 되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눅 9:23) 자기 십자가를 어떻게 지는 것일까? 정답을 알면서도 지고 싶어하지 않는 나의 모습을 직면하게 되었다. 복음은 반드시 고난이 동반되는 것이었다.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 실제 돼야만 진정한 연합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았다.

한국으로 돌아왔다. 이제부터가 진짜 아웃리치라고 말해 주신 선교사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졌다. 이스라엘로 나를 부르셔서 복음의 증인들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우리를 다시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주신 주님. 디베랴 호수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를 복음으로 다시 회복시키시고 '내 양을 먹이라'는 이 사명을 동일하게 주셨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살겠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GNPNEWS]

정민지

부흥을 위하여

북한의 순교자, 해방 이후 60년간 1만6900여 명

이 코너는 한반도의 부흥을 소망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슈나 사건을 소개하고 있다. 이 내용은 "북한 지하교회 순교사, 이반석, 2015(문광서원)"에서 발췌한 것이다. 〈편집자〉

실재하는 북한 지하교회

현재 북한 안에 지하교회가 얼마나 존재하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지하교회의 형태로 북한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필자는 모퉁이돌선교회가 수집한 1945년부터 2006년까지 공산주의 북한 정권에 의해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한 사례 761건을 분석하게 되었다. 분석 결과, 이 기간 동안 무려 1만6984명의 순교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순교자가 나올 수 있을까? 이것은 북한에 지하교회의 존재를 확실하게 드러내는 증거였다.

고(故) 김길남 씨의 증언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의 저자이자, 북한 특수부대 간부 출신이었던 故 김길남은 북한에 있을 당시 도움을 요청하러 친구의 집에 찾아갔을 때 그가 목격한 지하교회의 성도들의 모임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 일본의 TV에 방영된 북한 기독교인 처형 모습(출처: 모퉁이돌 선교회)

"친구 집에 도착해 보니 아낙네들과 남정네 그리고 친구가 함께 모여 있는데, 무슨 역적 모의를 한 것 마냥 나를 보고는 화들짝 놀라서 잔뜩 경계하는 눈빛을 보였다. 얼마 후에 나는 그들이 중얼거리는 소리가 어쩐지 무섭고 낯설어 빨리 자리를 뜨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그런데 순간 '아멘'이라는 소리가 들렸고, '아멘'이라면 예수쟁이들이 하는 소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퍼뜩 들었다. 예수쟁이라면 사회주의의 가장 극악한 원수들이며, 미신으로 완전히 마비된 자들이 아닌가. 이들은 인민의 혁명 의식을 마비시키는 유신론자들이 아닌가."

그는 숨어서 4명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모임을 목격한 것이다. 이는 1996년에 있었던 일로, 지하교회 성도들이 집에서 가족만이 아닌 집단의 형태로 모여 예배를 드렸다는 증거이다.

다시 북한으로 가는 탈북자들

1995년 이후에는 기근과 자연재해로 인해 북한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중국으로 탈북하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들은 그렇게 건너간 중국에서 복음을 접하기 시작했다. 조선족과 남한 사람들, 그리고 서방의 선교사들은 탈북인들에게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제공하면서 복음을 나누었다.

다수의 탈북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했고, 성경 훈련을 받았으며, 다른 사람들 특히 가족들과 이 기쁜 소식을 나누기 위해 다시 북한으로 돌아갔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치유와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실재를 입증하는 증거들을 경험하게 하셨다.

다시 북한으로 돌아간 성도들은 북한 내의 기존의 성도들과 만나기 시작했다. 기존 성도들은 그들에게 조용하고 단호하게 보안과 안전에 유의할 것을 조언했다. 그러나 새로운 신자들은 기존 성도들의 주의에도 불구하고 조심스럽지 않게 복음을 전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공동체 간에 마찰을 빚기도 했다.

그 결과 1995년~2006년에는 1988~1995년에 보고되었던 741명보다 5배 증가한 3720명의 성도들이 체포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들 중 개인 복음전도를 통해 그리스도인이 된 비율은 47%였다. 이것은 이전 기간에 개인 복음전도를 통해 그리스도인이 된 2%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이다. [GNPNEWS]

나의 소망

"고난을 고난답게 당하려면"

'천로역정'의 저자 존 번연은 생전에 수많은 고난을 겪었다. 어머니와 누이가 거의 동시에 세상을 떠났다. 또 아버지가 곧바로 재혼하셨다. 그의 첫째 아이는 갑자기 시력을 잃었다. 아내의 죽음과 그로 인해 남겨진 아이들 넷, 12년 동안 감옥생활로 가족과 교회로부터 단절되었던 일. 알 수 없는 박해 그리고 또 한 번의 투옥 등.

그는 말했다. "고난을 고난답게 똑바로 당하려면, 먼저는 이생의 일이라고 불려질 모든 것 위에 사형 선고를 내려 나 자신, 나의 아내, 나의 아이들, 나의 건강, 나의 즐거움뿐 아니라 그 외 모든 것들을 죽은 것으로 여기고, 나 또한 그들에게 죽은 것처럼 되어야만 함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하자면, 그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잇대어 사는 것으로 가능했다." [GNPNEWS]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2016 일일금식기도성회

7경건의 열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로마서1:16)

일시 | 2016년 **10월 31일**(월)
오전10시~오후10시

장소 | **선한목자교회**(담임: 유기성 목사)

주관 | **복음기도동맹**

문의 | 복음기도동맹사무국
010-4910-4641, gnpall@daum.net